

제 3 회 碩士學位 授與式 盛了

134名의 高級頭腦 輩出

工學碩士 82名 理學碩士 52名

한국과학원(院長 趙淳卓)은 2月 22日 제 3 회 석사학위 수여식을 갖았다.

과학원 강당에서 있었던 이날 式典에는 崔亨燮 科學技術處 長官, 鄭寅旭 理事長을 비롯 科學界 技術界人士 50餘名이 초청 되었으며 134名 碩學들의 앞날의 幸運을 祝福하기 위해 400餘名이 參席하였다.

국립관현악단의 은은한 현악연주속에 진행된 학위수여식은 꿩칠줄 모르는 박수 갈채로 한층 고조되었다.

이날 학위를 받은 134명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18명
- 산업공학과 공학석사 20명
- 생물공학과 이학석사 19명
- 수학 및 물리학과
 - 응용수학전공 이학석사 10명
 - 응용물리전공 이학석사 10명
- 재료공학과 공학석사 16명
-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17명
- 화학 및 화학공학과
 - 응용화학전공 이학석사 13명
 - 화학공학전공 공학석사 11명

한편 이들 高級科學頭腦들은 이미 就業이 確定되었다. 예년에 보기드문 치열한 고급두뇌 스카웃 선풍이 일어 就業配定에 곤욕을 치른 科學院은 今年 新入生の 정원을 150명에서 183명으

로 늘었으며 해를 거듭할 수록 수요가 늘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원이 있음에도 교수진의 수나 시설의 확장은 당장 어려워 수용능력에 무리가 있는 듯하다.

이들의 就業을 區分해 보면 產業體 51名, 研究機關 60名, 政府機關 6名, 教育機關 7名이고 博士코스 進學도 10名이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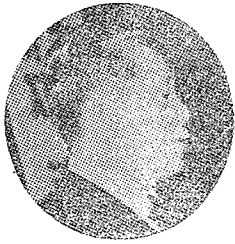
이날 趙淳卓 院長은 式辭에서 韓國科學院은 創立以來 施設의 擴充과 教育과 研究에 內實을 期했으며..... 이제는 國際的인 科學頭腦를 育成하고 있다

<趙淳卓 院長> 고 自負할만큼 名實共히 成長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科學技術이 只今 產業發展에 支援役割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產業成長을 적극 先導하는 始點에 이르렀다」고 했다.

趙院長은 「國家로부터 惠澤을 받아 修學한 것을 잊지 말고 國家產業發展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는 使命感을 갖고 떠나줄것과, 겸허한 자세로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담당, 產學協同의 橋樑役이 되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崔亨燮 長官은 致辭를 통해 그동안 勉學을 위해 밤낮없이 努力한 이들의 勞苦와 이들을 指導하여 오늘의 榮光을 얻게한 院長, 教授 職員들, 學父母의 敬성을 치하했다.

崔長官은 國土가 협소하고 賦存資源이 넉넉치



〈崔亨燮 長官〉

또한 崔長官은 「한分野에서 頭角을 나타내어 一流가 된다는 것은 決코 쉬운일이 아닌 것이다 生涯勉學이라는 確固한 覺悟와 決意아래 每日每日의 精進없이는 國際的으로 認定받는 境地까지 到達하기 어려운 것이다」…… 崔長官은 한 例를 들어 「西歐의 大學에서 東洋人이 最高의 成績으로 卒業하고서도 30~40年 뒤엔, 卒業時에 그보다 못했던 西洋人들이 노벨賞을 받는 等 世界的인 碩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西洋人은 마치 「피라미드」를 쌓듯이 自己專攻分野는 勿論이고 境界分野로부터 社會科學에 이르기까지 넓은 土臺를 쌓으면서 生涯동안 끊임없이 研究業績을 集積하여 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풀이 했다.

그리고 오늘로 부터 眞實한 意味下에서 學問하는 生活이 始作됨을 강조하고 社會와 國家를 위해 끊임없이 努力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어 석사학위증을 손에든 134명의 졸업생의 퇴장은 훌가분히 들떴던 졸업생이라는 분위기 보다 걸터진 국가대개의 사명감이 더욱 어께를 무겁게 하였으리라…… 누군가의 박수소리에 뒤질세라 끊임줄 모르는 격려의 박수는 강당이 떠나갈듯 우렁차기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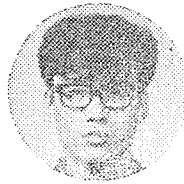
이날 산업공학 석사학위를 받은 학생회장 이었던 서의호군은 이렇게 말했다.

—졸업소감은—

세계 우수산업과 어께를 겨눌 수 있는 실전장인 산업계로 나가게되어 지금까지의 修學을 바탕으로 조금도 뒤지지 않는 업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못한데 人口마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豊富한 人力을 開發하여 技術集約的인 頭腦産業을 적극 育成하여 國際競爭力 強化에 힘쓰는길 밖에 좋은 方法이없다……고 말했다.

—학교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徐義鎬

과학원이 인재배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 물론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있는 분들은 과학원의 우수함을알고 있는것 같지만 산업계는아직도 과학원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된 것같지는 않다. 사회에 뛰어드는 학생을 위하여 더많은 홍보(?)를 부탁하고싶다.

—후배들에게 주고 싶은 말은—

확신하는 것은 10~20년후 한국에서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과학기술계에서는 과학원이 장악 하리라는 확신을 갖고있다. 그러므로 공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며, 또 공부하는 길만이 애국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당부한다

—외국에 비교하여본 수준은

어떨다고 생각하는가—

학생의 신분으로서 좀 외람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장선생님뿐 아니라 과학원의 타당성을 조사하러오는 외국사람과 의견을 나누어 봐도 두뇌만은 미국 하버드 MIT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실험실기구라든지 연구업적 저널등 여건의 구비가 미비하여 뒤지는 겐이 있다고 본다…… 곧 해결되리라 믿는다.

—장래문제는—

산업체에 몸을 담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산업의 번영에 노력하겠지만, 여건이 허락하면 박사과정과 연구를 계속하여 더욱 보람있는 업적을 나타내고 싶은 욕심이다.

세번째로 과학기술 두뇌를 배출하는 한국과학원은 4회(석사학위 과정)재학생 145명과 박사학위과정 33명이 남으며, 이번신입생 227명이 <석사학위 과정 183명, 전분석사과정 44명> 다시들어오게 되어 더욱 알찬 면학의 전당이 되어가고 있다.